

기독교 환경론의 실증적 고찰

김농오(목포대공대 조경학과 교수)
한국도서섬학회 회장

1.서론

최초의 학문적 도전, 그것은 1981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체계론 세미나수업 때였다. 그 때,1967년3월 10일 science지에 발표된 Lynn white,Jr의 “The historical roots of ecological crisis”논문이 큰 도전이 되었다. 그것은 환경파괴의 주범이 서양과학기술 문명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그 면죄부를 기독교가 부여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므로 환경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대안적 기독교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신명기 22장/ 6절~12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신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겂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새, 농작물, 가축사육, 심지어 건축안전공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보면서 기독교환경론이야말로 자연도 보존하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지탱해줄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임을 발표하고 호응을 받은 바 있다.기독교 환경론 연구방법은 기존 환경론의 학문적인 문헌의 비교고찰과 아울러 기존의 철학이론과 생태적 이론등을 성경 말씀(딤후 3/14-17,히4/12-13)에 근거한 논증으로 세계관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은 기독교 환경론에 근거한 조경론의 정립으로 필자가 지난 30 여 년간 실제로 교육 홍보 조경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심의 자문 정책기획 등 활동 통해 습득한 체험 결실을 통해,기독교환경론적용이 환경적으로 훼손되고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소생, 복원내지 공원화, 명품땅이 될 수 있는지, 실증 통해 21세기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전 지구적 환경위기 극복의 대안적 세계관임을 논증코자한다.

2 기독교 환경론

가)환경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그리도인 자세

신 구약 39권의 성경속에 나타난 말씀에 근거하여 환경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하나님은 천지만물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아니라 자연을 보호해오셨음을 알 수 있다.예컨대 노아 홍수심판때에도 모든 생물들을 멸종하신게 아니라 그 생물종들의 DNA형질보존을 위해 노아방주용량을 그에 상응하게 제작하게하셨다 (창7장).또한, BC1400년경 기록된 신명기 22장 6-7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새들도 보호하고 계시고 롬8/22말씀에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다.

둘째,하나님은 창1/28에서 자연을 다스리라하셨지 파괴하라고 하지않으셨다 영어로 full fill의 의미는 자연의 착취가 아닌 오히려 자연을 충족히 채워주어야한다는 의미이다.자연도 인간이 가꾸어주지 않으면 황폐하게되고 만다.하나님은 국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주관하고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뛰놀길 원하신다 (사 11/6-8,사65/25)

셋째,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시구 계명으로 지키라 하셨다.(출20/8-11),또한,안식년(레25/2-7.신15/1-3),.禧년(신25/8,레 25/8-55)을 지키라하셨다.자연을 다스려야할 인간들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 없다 개발과 보존 노동과 휴식의 작업시간까지 기독교는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환경보호의 대안적 세계관이 충분히 될수있다고 본다.

넷째,성공적인 자연보호운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목회자들이 참여한 점이나,독일의 Bode 목사주도로 자연보호공원을 조성했던 점 등을 교훈삼아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범 교단적 범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말세에 고통당하는 인간들과 만물을 충만케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역사요 물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되어야한다 (엡1/25)(김농오,인간과 창조세계와의 조화,고신대 창립20주년 특집,고신대학보,1989년.10월 31일)

나)환경론의 역사 철학적 이해와 성경적고찰

먼저,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연의 재료(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창2/7)또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한다.이 점에서 인간을 자연생태체계(Ecosystem)의 구성요소로만 파악하는 생태학적 환경결정론과는 대

조되며, 자연이나 환경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인간의 의식에 의해 관계가 부여된다는 환경자유이론과도 대조된다. 유기체(혹)으로 구성된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구성요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인간은 자연의 하부개념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애니미즘 토템이즘에서 자연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롬1/20)신의 형상처럼 받드는 이방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겠다. 동시에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자연의 질서와 에너지 순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존재라는 점(마4/4, 요6/63)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에서만 변증법적인 역사발전을 제시한 마르크스의 환경론이나 생태적 사회주의(Ecosocialism)나 생태적 파시즘(Ecofacism), 에코토피아(Ecotopia)와는 다르다 하겠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1/28)는 축복을 주셨다. 생태학자들은 먹이사슬관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최상단 포식자에 올려두고 오늘날 환경파괴의 주범이 인개체수의 급격한 증대에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라흐 사고는 한계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개체군생태학(Population)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개체수가 적정수용능력을 넘었다면 인간은 진즉 멸망당했어야 한다. 말더스의 인구론 역시 인구의 기하학적 증가로 멸망당했어야 할 인류는 2019년 현재 지구에 71억 정도 생존하고 있고 해마다 10억씩 증가 30년 뒤 2050년에는 100억을 돌파할 것이 예측되어 있다. 분명 태초부터 인류는 진화(Evolution) 아닌 지구환경에 잘 적응하며 (Adaption) 번성해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증가가 문제 아니라 그 동안 산악제한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왔던 서유럽 기독교 강국들이나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인구쇠퇴로 국가공동체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범교단이 문체부 출산장려&전도부흥성회를 개최한 2019년 10.20집회는 성경적인 환경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 범세계적인 기독교 환경운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1/28)는 일을 맡기셨다. 토지는 인간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유사 이래 인간들은 이 토지상에서 경작하며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성곽이나 도시를 만들고 오늘날 거대한 문화경관(Built Environment)을 만들어내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빈곤의 문제가 자본주의체제하에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고 생산성저하와 소득의 재분배에서 상대적 결핍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나태와 자연에 대한 무지로 충분한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잠 6/6-11).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해양생태자원들을 비롯 임산자원 등 식량원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인간들이 토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필요이상의 생산성향상 대규모건축 지가상승 부동산투기 등이 불균형을 촉진시키고 성경적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도 고갈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히 부채를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다. 주6일 노동은 의무이며 노동의 댓가로 먹고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창3/17,데전후3/6-12) 또한 토지생산물은 사회적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 공유해야할 대상으로 보아야한다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전 5/9)했다.인간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가리지 않고 토지 경작자 청지기(Stewardship)역할을 감당해야한다.우주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고전3/21-23) 인간은 땅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위치에 있어야한다.인간은 땅을 파괴하고 생명체들을 멍쩍 죽이는 특권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허락한 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영매맺는 나무(창1/29)였으며 지상의 모든 동물들 먹이 역시 초본류인 것을 보면 (창1/30),지금의 생태체계와도 태초에는 달랐을 것이다.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때에도 동물들을 보호하셨고(창7/1-5)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에도 새 사냥도 극히 제한하셨다 (신22/6-7).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마 6/2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마 7/30)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1/29)고 하셨다 못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9/5)는 구절을 종합하면 인간에게 생존위한 음식물이상의 살상행위를 허용치 않고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을 함께 저주했다는 점이다.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이브로 인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3/17)했구 노아 홍수심판 때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지면에서 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창6/7)했다.이것은 지금까지 환경결정론적 자연관과 자유의지론적 자연관이 인간과 자연을 어느 한 쪽에 종속된 이원화 시키면서 생태중심주의(Ecocentric) 와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c)를 형성한 것과 대조된다.따라서 환경문제 해결도 기능적 다원주의(functional Pluralism)적 관점에서 다원화된 인간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 집단사이의 불균형을 민주적 절차에(선거 사법적규제,시민여론 감시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기술 생태적으로 해결코자하는 자본주의 체제나 인간과 자연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과잉인구 억제통제 통하여 시장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하는 마르크스적 생태적사회주의(Ecosocialism),생태적 파시즘(Ecofacism),에코토피아(Ecotopia)로도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가 인간 개체수의 증대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노동착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땅과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만 인간중심 혹은 자연생태중심

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공학적 해결 태도부터 바꾸어야한다. 혹 내가 하늘을 달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하거나 혹 열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최근 UN 전세계 조기사망 1위(사망자40%이상)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재앙으로 봐야하며 (신28/20-24),(역하7/14)말씀처럼 먼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회개하고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피조물들도 진정한 주인을 갈망하고 있다.

(롬8/20) 사랑과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날 때 지구환경문제해결의 길이 열린다.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환경과 함께 저주받는 다는 걸 알고 자연의 재앙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나나야한다.(김농오, 환경의 역사적 철학적 이해와 성경적고찰,호신대학보 1989)

다)환경요소에 대한 기독교환경론

성경에서는 인간과 피조물(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물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인간의 숭배대상(우상)도 아니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속성도 아니며 단지 인간의 삶의 무대요 인간이 다스리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다만, 물 없는 광야(사막)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며 마귀가 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눅11/24,출17/1,레16/22,민20/5,신8/15,신32/10,렘2/2,마4/1)

인간이 만든 조형계 요소와 각종 문화행위에 있어서 이방문화의 상징인 바벨탑, 바벨론도시를 악의 총체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을 선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교회개념으로 신약시대에 바뀌며 교회는 세속문화권 속에서 세속문화와 세속문명(조형계)와 싸우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교회가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할 때, 기독교 문화권이 이방문화권에 흡수 소멸 되어버린 예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방위 방향에 있어서 수직개념과 수평개념도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중심, 개인중심으로 구심점이 이루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다만,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은 항상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었고 구원섭리 세계선교의 방향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상11/31-36,신11/1-12,시102/13,행1/6-8,롬11/1-12,롬11/25-36)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성경은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창1/1,마24/마24/1-31,계21/6)

인간은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둘째사망(유황불못심판)을 통과해야 하고 오직 구원받는 성도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계시한다.(계20/14)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다. (벧후3/12,계21/1-2)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 땅

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의길 교회공동체로 인도해야하며, 세상 끝날까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청지기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만,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연에너지를 먹으며 육체적 생을 지속하되, 바벨론 우상문화, 세속적 악을 버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며 자연을 건전하게 잘 다스려 나가야한다.기독교 환경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요소(산,계곡,바다,섬,사막,강 들 등)은 결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정신적 영적 실체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다.미화 찬양의 대상도 아니고(욥/31/26-28) 오직 인간이 다스리고 가꾸고 관리해야할 대상이요 난 개발 과도한 개발 아닌 인간 생존 위한 적절한 개발을 유도해야할 땅으로 인식되어져야한다고 본다. (김농오,창조신앙과 기독교 환경론,통합연구 12,통합연구학회,1991.9 PP89-108)

라) 환경운동의 전개방안

기독교 자연보호운동이 경계해야할 점은 ,Lynn White말처럼 종교적이어야하고, 행동에 앞서서 분명히 해야할 점은 자연보호 성격과 목적이 분명 여타 종교와 신안체계와 상이하다는 점이다.최근 호주 생태계획가 Max Lindegger는 그가 만든 생태마을에는 어떤 교회당이나 신전도 없이 오직 자연이 곧 그들의 신전인것처럼 묘사한다.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진정한 자연보호로 영적 종교적 경건한 삶을 목표로한 것이 아닌 인본주의 낙원을 구사하기 위한 자연보호실천운동이었다.자연속에서 은둔적 삶을 살았던 노장사상등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범 세계 범 종교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목표가 물병자리 출현이요 UFO와 같은 외계인을 숭배하는 것은 망가진 자연 (지구) 대신 새로운 우상을 찾는 종교운동이요 단순한 자연보호운동이 아니다.조상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왔다고 믿는 푸에블로인디언들의 지모신앙이나 산악숭배사상, 신선사상 ,무당의 주술적 능력을 믿고 온갖 기암괴석, 당산목 등에 제사하고 금송아지 등 우상을 만들고 기원하는 샤마니즘적 기복신앙,동물 영혼의 실존을 믿는 토테미즘적 정령숭배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 윤회를 믿고 살생을 금지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불교 등 종교에서 자연보호란 그들의 신(우상)자연 물신숭배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자연을 영원불멸의 실체로 보고 자연을 숭배하며 종말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먼저 이것을 알찌니,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둔것이라(벧후 3/3-7).자연은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매일 반복되어지고있고 해안경관도 조금씩 변한다 사계절의 변화 낮과 밤 일교차 등으

로 자연은 풍화과정을 지속하며 자연경관도 변화해간다.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불 타 없어질 수도 있다.지구환경도 거대한 우주 속에서 보면 미진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여기고 피조물(자연의 요소들, 지구 일월성신 등)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된다.현대의 첨단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신비와 지혜를 더 밝혀주고 있는 반면 ,어리석은 진화론자들은 금수와 버러지형성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롬1/20-32)이들은 우주변화를 진화로 잘못 관찰하는 데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한편,근대과학혁명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분리시켰고 자연을 개발하고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건설하는데에는 성공했다.현대판 바벨탑과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고,수없이 들어선 공장에서는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무제한 배출해내고 프레온 가스는 이미 온존층도 뚫어가고 있다.농경지는 농약으로 죽은 땅이 되어가고 강물과 바다는 부패한 유기물로 악취가 가득하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 죄책감없이 윤리와 인격도 무시하고 막말 갑질이 성행하며(마 5/21-22) 낙태,학살,테러,폭파,전쟁 등이 비일비재하다.이러한 모든 결과가 잘못된 자연관 환경론에 기인한다.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순결한 성 마저도 상품화시켜 섹스산업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급기야 동성애 다자성애 사회적 성(gender)합법화 단계에 와있으니 전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다.(눅17/28-30)술과 마약 도박 증권 부동산 투기 금권 관권 선거 권력형부전부패 등으로 인간 사회공동체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자살율 세계1위 출산율 저하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인구소멸 위기에 미세먼지 위기, 지구온난화 영향은 한반도가 높은 것으로 경고불이 울려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다.오히려 곳곳에 축제요 러브호텔 대규모 아파트 등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눅17/28)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황금 우상을 만들고 주지육림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상 살지 말고,가던길을 빨리 멈추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중증위독 영적무감각 상태(마11/17,눅7/32)에 빠진 인류와 지구환경을 지켜내는 청지기적 소명을 다하는 이 땅의 참주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경지킴이 운동이 일어나야한다고 본다.(김농오 ,기독교환경운동의 전개방안,월드크리스찬,2001년 2월 5일)

3.기독교 환경론에 근거한 조경론

1982년 3월부터 목포대학교에 부임 조경학을 교육하면서 성경적 환경론에 기초한 조경학 이론을 정리해 나갔다. 먼저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이란, John Ormsbee Simonds는 “the shaping of man's natural environment” 라 정의했고, A.S.L.A에서는 “The art of arranging and composing the land, plant, waterform and structure for man's use and enjoyment”로 정의를 내렸다. 자연

(Land, Plant, Water)에 인공구조물과 더불어 필요로 하는 용도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예술(기술)로 정의한 것이다. 조경학이란 일종의 칸트가 분류한 조형 예술인 셈이다. 문제는 자연(Land, Plant, Water)과 인공구조물(structure)을 대하는 관점과 景(Landscape)해석의 기독교적 조망(view)이 정립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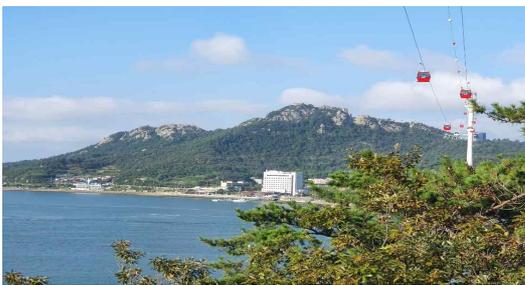
A.I.L.A에서는 Landscape을 “a portion of the surface of the earth including all the objects on it”로 정의한다. Landscape은 Landscape의 어원으로, 의미가 중세 유럽 장원 경제단위 공간 크기의 영지(manor), 경치개념(scape)으로 바뀌었으므로 경landscape의 규모에 따라 주택정원, 공원, 도시녹지, 생태도시, 관광휴양단지, 국도립군립공원, 농산어촌, 지역단위, 군도 국토단위의 광활한 토지를 대상으로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해야 하는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의 대상이기에 경(landscape)을 보는 세계관에 따라 자연을 대하는 근본접근이 다를 수 밖에 없다 D,W Meinig는" 10 Versions of the same Scene ,The Beholding Eye"

에서 경(landscape)에 대해 Nature, Habitat ,Artifact, System ,Problem, Wealth ,Ideology ,History, Place, Aesthetic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정리했다.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 (빛:창1/4,땅과 바다;창1/10, 풀 채소 나무;창1/12,광명체 낮과밤;창1/18,어류 조류 육상동물 ;창1/21,남자와 여자; 창 1/31)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묘사되어있다.또한 물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1/22) 축복하셨고 인간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fill the earth ,땅을 정복하라.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rule over하시니라.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창1/28-30)”축복하셨구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경작하게 두었음(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을 종합하면 Landscape를 자연 ,모든 생물들의 서식처요 사람에게 의해 경작되어지고 어느정도 변경 조작되어질 Artifact, Wealth, Place, History로 보는 것은 유사하다하겠다.또한, 인간을 포함 우주만물을 창조 하신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하시므로 경Landscape을 그 자체로 미적 대상으로 보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로 보건데, 태초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최초의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는 아담인 셈이다 .다만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Problem)발생과 자연 요소에 대한 이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비 기독교적이라 하겠다. “만일 해가 빛남과 같이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욥 31/26-28)”는 욥의 고백처럼 피조만물은 아름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오직 경외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다.(엨애5/19,롬9/5,롬11/36,유

1/25,계5/13,계7/12,계10/6,계22/5)이에 벗어나면 우상숭배요 하나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므로 경Landscape에 잘못된 사상 이념 신적 존재의 대상으로 미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환경파괴행위는 지양해야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조경론의 정립이다.J.O.Simond는 그의 저서 Landscape Architecture에서 조경가가 디자인할 수 있는 대상은 주경관요소(Major Landscape Element) 아닌 소규모경관요소(Minor Landscape Element)로 제한하며 보존(Preservation) 변경(Alteration) 강조(Accentuation)까지는 허용되나 파괴(Destructio)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국제사회는 1972 6 5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스톡홀름),1992년 리오선언(리오데자네이로) E.S.S.D(Envir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합의에 이어UN MDGS(2001-2015) SDGS((2016-2030)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환경위기는 최근 급속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Lynn White의 주장처럼 기독교환경론이 더 적극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어지고 모든 개발 주체들이 적용해야하며 특히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 일에 보탬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필자는 기독교 조경가로서 기독교환경론의 조경학에 적용 실제로 환경정책 기획 계획 설계 심의 자문 대사회적 홍보 시민운동 등 지난30여년간 현장 적용사례 통해 기독교환경론이 21세기 전인류가 지향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대안적 세계관임을 논증하고자한다

4 기독교 조경론의 적용

사례1)유달산 공원 개발안



(사진1 유달산 공원)



(사진2 고하도)

유달산은 1981년11월29일 유달산 일주도로 개발위해 당시목포시 공무원 과 함께 현지 정찰중 일주도로개설의 라인을 정하는 것을 가장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주도로의 높이가 높 아지면 1등 바위 2등 바위 등 특이경 관 요소가 망가지고 너무 낮으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에 적당한

선에서 도로선을 설정하였다 이후 달성공원 난공원 조각공원 등 공간배분과 아울러 어민동산,공생원수목원조성 등에까지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식수 및 환경복원 편의 유희시설 보완을 통해 돌산에서 시민들의 공원으로 완성되니 봄철 개나리꽃축제 등 관광 명소로 거듭나 연간 100만명 정도의 이용율도 높이고 생태계도 건강한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다 기암절벽에 새겨진 일제 때 흔적 등의 의미 보다는 기암절벽의 자연미와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향상 등에 비중을 두고 공원화 녹화 위주로 개발했다.유달산 건너 고하도 섬이 있다 유달산 자락 대반동 해안가의 친수공간 조성 온금동째보선착장 조선내화 근대역사경관보전 등 조경처리와 아울러 목포8경 중의 2경 고하설송과 용두귀범이 사라질위기에서 보존에 앞장섰다 그것은 삼학도항의 기능이 어항은 북항으로 ,내항은 삼학도 공원화유도와 아울러 레저선박 워터프론트 명소화 전략으로 대규모 물동항을 고하도 신항건설로 이전 유도한 바,고하도 신항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매립 토사를 고하도 산을 절토하여 개발하는 안을 국토부가 제시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산봉오리 존치하고 친수항만을 유도하도록 협의하여 현재모습으로 섬봉우리 경관이 보존될수 있었다 이러한 입지 여건에 2019년 9월6일 국내최장 해상케이블카가 유달산 -고하도간 개통 됨으로서 자연경관 감상만으로도 연간 500만 -1000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지역경제발전의 기회요소가 되었으니 경(landscape)의 전문적 연구와 설계 및 목포시와 중앙정부 협조 목포시민들의 민주적인 공원개발 헌수운동 등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아주 성공적인 자연보전형 공원모델이다

사례2)삼학도 공원 개발안



유달산 공원의 성공은 삼학도공원 개발의 열화로 목포시민들에게 점화되었다.사실 삼학도는 전설적인 세 개의 섬을 연륙화 매립공사하여 항만으로 개발하여 호남제분공장 석탄하역장 원목하역장 유류탱크 해경청사 등 목포시의 경제 산업 동맥과 같은 공

(사진3 삼학도 공원)

업지역10만평이 지정고시된 토지이다.대삼학도 5만평정도 만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옐로우하우스 등 불법 술집 건축물들이 난립되어져 공원의 기능이 극히,제한된 곳이었다.다행히 1999년 남해안 관광벨트 국책사업이 진행되었고 자문교수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삼학도테마관광명소로 남해안 관광벨트에 반영 이후 10여 년 세월을 거쳐 공업지역 10 만평을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목포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아름답고 상징성 강한 공원으로 완성 ,2019년 8월 8일 제1회 국가지정 섬의

날 행사가 이곳 삼학도 무대에서 열리게 되어 3일간 짧은 기간임에도 15만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향후 항만기능의 완전 이전 및 공원화 사업이 보강되면 세계공원사 특히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국정에 반영되어 일궈낸 도시공원 성공사례로 귀감이 될 것이다.매몰된 3개의 섬 중 2개의 소,중 삼학도의 재현위해 섬을 회유하는 소규모 운하모양의 순환수로를 만들어 3개의 봉오리경관을 복원시키고 뱃놀이도 할 수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망가진 자연을 복원하고 녹화하여 시민들의 휴식 휴양의 장소로 활성화 시킨 자연복원형 공원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사례3)갯바위공원 및 목포하당해안경관조성



갯바위공원은 남농미술관 조성에서부터 향토자료관, 차범석 박화성목포문학관 옥공예전시관,목포문화예술회관,목포자연사박물관 해양역사유물전시관 등이 장기간 점차적으로 들어와 공원으로 잘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1980년 대 말 하당 2-2 지구 해안 매립 하당신도시개

(사진4 갯바위공원)

발 착수 전 설계보고서 내용 검토 중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일직선으로 샷갯바위 앞을 지나 해수욕장매립 연산강하구연까지 대규모 매립위기에 있던 것을 학자적 양심 크리스찬 양심으로 샷갯바위의 자연기암의 미적가치와 해안 갯벌 보존의 논리로 매립 선을 후퇴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의 자연형상이 되어있다.매립위기의 샷갯바위는 이후2009.4.27 천연기념물500호로 지정되어 국가가 보호할 뿐만아니라 하당 신도심에서 해안 데크를 통하여 주야간에 시민들의 휴식 힐링장소가 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발론자들의 회유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말 못하는 자연의 아픔을 느끼며 미래 이 땅에서 살아가야할 주민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생각하며 지역 경관 자연 지킴이 청지기의식이 있었기에 홀로 맞서며 지킬수도 있었다.최근에는 해양유물전시관 주변 광장에 전시된 배들을 해안으로 이전시키고 광장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및 공연장으로 활성화 시킬 것등을 제안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진정 지역주민 사람이 주인인 공간으로 그리고 자연 갯벌과 샷갯바위 등 해안경관을 보전 및 이용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하당신도심도 해안 스카이라인 (조망권)보호를 위해 설계안에 해안에서부터 낮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배치시키고 해안변

에는 먼저 저층 상업시설들이 입지 관광 친수해안이 개발되도록 유도했던 점 등이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개발의 성공사례로 귀감되고 있다.

사례4) 압해도 분재생태공원



신안군 압해도 송공산에 산불이 나서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함과 동시에 이곳을 재생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촉발된 사업이다. 송공산 인접한 해안쪽 논두렁 (농림지역) 약 1만평 조금 못되는 작은 토지이지만 송공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논두렁을 적시고 해안

(사진5 압해도 분재생태공원)

으로 유출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비교적 물이없는 목포지역에 자연스런 계류와 연못정원을 조성하고, 신안군에 기증되어져 모아진 분재들을 모아 상설 전시공간을 결들인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 무안국제공항 -압해도간 김대중대교가 개통되고 압해도 목포북항간 압해대교가 개통되어 ,연간 15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의 휴식 및 자연체험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2019년 2월 1일에는 압해도 송공항-암태도까지 7.2Km 천사대교가 개통되어 주변 지역으로 공원확장 및 녹화 관광시너지효과를 증진시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사례5)기타



(사진6 순천만 국가정원)



(사진7 순천만습지)

광주 상무 신도심 518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에 직 간접 정책 설계심의 자문 등에 참여한 바 있다. 1993년 광주518공원 기념화 사업에 참여,광주상무신도시건설 위해 인근 화방산을 절개하여 매립하지 못하도록 방지함으로서 과도한 녹지훼손을 막았고 인근 운천저수지의 생태공원유도 ,1991년 광주천 생태하천유도,광주녹기기본계획수립,

최근에는 광주공군부대이전부지 274만평을 첨단생태 상생도시화유도 및 광주대도시의 생태관광거점도시화유도 등을 시도하고 있다. 1995년에는 평범한 연꽃방죽에 불과했던 무안군일로읍 연꽃방죽을 생태관광명소가 되도록 유도했고 함편천을 나비축제장에 머물고 있던곳을 생태하천복원하도록 유도하는데 앞장서서 현재 생태관광명소가 되어 있다. 2000년 전후에는 영산강 4단계사업으로 무안 도리포에서 영광까지 하구언을 조성 함해만을 담수호로 만들 정부정책에 반하여 무산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다행히 김대중정부에서 수용해서 하구언대신 칠산대교를 2019년말 준공예정이라 이 일대 무안 갯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갯벌생태관광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2000년 이후는 지속적으로 전남 전 지역을 녹색전남 생명의 땅 전남으로 ,친환경디자인으로 전남을 그랜드디자인하자고 외치며 급기야 나주시 남평에서 2016년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 유도 및 국제친환경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여한 바있다. 2018년 이후 한국도서(섬)학회장이되어 전국339여 개의 유무인도 섬에도 대대적인 녹화 공원 정원을 조성하라고 외치고 있다. 급기야 2019년 10월 24일 제주도 한국산림과학원 난대림아열대연구소에서 도서섬지역 산림정책세미나 좌장을 맡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녹화방안을 구체적으로 국정에 반영 시킨바있다녹화야말로..21세기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용이한 대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순천시와 순천만 갈대습지 중간 지역에 완충공간으로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이 입지하도록 적극 협력 협조하여 순천시 생태도시화유도에도 기여한 바 있다. 최근 2019.9.25.-27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정책박람회가 순천국가정원에서 개최되었고 지역자연자원 혁신의 성공모델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순천만습지는 람사르습지 생물종다양성 인증에 이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 예정이다 도시근교에 이처럼 잘 보존된 생태습지가 드물기 때문이다 관광객들도 해마다 습지와 정원보기위해 근 1000만이 찾아올 정도로 생태관광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모래채취 위기로 상실 위기에 빠질 뻔했던 순천만 갈대습지를 주민들 시민들 지역전문가 나아가 순천시 전남도 정부의 광역행정 협력에 의해 완성된 성공적인 자연보호형 대규모 생태관광명소이다. 2006년 갯벌의 보전위한 도립공원화방안제안 이후 전남에는 증도갯벌 무안갯벌이 최초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신안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중이다.잘못된 그린벨트제도개선,잘못된 국립공원제도개선, 잘못된도서(섬)개발의 정책개선 등 나아가 한반도녹화운동 숲속의전남운동 농산어촌 생태마을 생태관광명소 영산강살기기 생태벨트운동 나홀로아파트 경관훼손 건축물 인공구조물의 난립방지 등 크리스찬 조경전문가로서 자연경관지킴이 사례는 수없이 많고 대부분 공감과 호응을 받았고 지금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시켜 자연도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해주고 국민들의 힐링 휴식처가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잘 가꾸고 돌 본 지역은 분명히 생태환경도 호전되었고 살기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여기에 더하여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E.S.S.D지속가능한 사회 국가를 만드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선다면 더욱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일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연치유 생육번성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구현되도록 기독교환경론에 입각한 Edenic World조성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

자연경관의 요소에 대한 상징적 이방종교적의미를 무여하는 일체의 의미를 배격하고 오직 자연의 생태성 미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인간의 삶의터전이요 무대요 장소로서 경(landscape)의 보전과 이용을 유도함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보전 훼손된 곳의 복원 및 인간이용을 위한 적절한 선에서의 개발을 유도하는 지혜는 그 때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서의 하나님과동행 교제나누는 공원조성-Edenic World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상교회부흥과 기독교문화 기독교문명사회를 이루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내는 기독교환경론의 실천운동이 되지않을까?윤기윤학자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공생원 유달산공원화, 문준경전도사의 십자가사랑이 있는 신안 증도 기점 소악도 연결 순례자의길 조성,크리스찬타운형성 서서평선교사 유진벨 오웬 남대리New Land등 광주전남복음화의 선구자들의 흔적이 있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기독교문화공간 재현의 도시재생사업 등은 크리스찬 전문가 환경운동가가 주도함으로 일궈지고 있는 좋은 성공사례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논증한 바 1972년 스톡홀름선언,,지구의날지정 지구보호운동,1992년 Rio 선언과 ESSD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 지향 UN의 MDGS(2001-2015)목적설정 SDGS(2016-2030)목적설정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실천적 노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재란은 전 지구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 상황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2.9mm/yr 고조되어가고 있고 20C말 대비 21C말에는 33cm-96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2019)

어쩌면 1967 Lynn White의 비판적 예측이 맞아들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동시에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것은 서구과학기술문명 자연관의 근본이 되고 있는 기독교 환경론의 외곡된 부분을 교정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환경관을 정립하여 이의 대중화 공론화를 통한 대대적인 환경보호운동에 성도들과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길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자연보호의 주체인 죄성을 가진 자연인 인간은 이기적 욕망과 비양심적 경제행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없다는 것이고 둘째,일반적인 자연보호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보호대상인 자연의 요소들을 환경결정론 운명론으로 인식함으로서 자칫 자연 숭배의 큰 죄악을 저질 우려가있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된다. 또한 자연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할것인바 자연경작의 지혜를 적용하지 못해 가난을

극복 못하고 낙후되고 원시적인 삶을 극복해 낼 수 없다 셋째, 근세기 과학기술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계론적 자유의지론적 환경론이 대두되면서 자행되고 있는 과학만능주의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며 거대한 바벨론문명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며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며 환경 공해 등 환경문제를 급속히 야기시키고 있지만 해결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넷째, 생태계 시스템을 중시여기는 생태적파시스트들처럼 환경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인간 개체수의 증가에 있다고 진단하고 산아제한 낙태 인간 청소 등을 합법화시키는 환경론 역시 생명경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환경론은 첫째, 자연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1/28) 말씀에 근거하여 지구환경은 지구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지구생태용량을 확보해두시구 인간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전제한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요 인간들이 다스리고 fullfill(창1/28) 관리해야할 (창2/15) 대상으로서 파악했다 둘째, 자연은 인간과 분리되어 인간 의지대로 자유자재 통제가능한 물질 대상도 아니고, 육적생명체를 갖고 있는 인간 역시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에너지 순환체계에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자연과 공생해야할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공생해나가야지 자연이 훼손되고 망가지면 인간생명도 위협받게 되어있다고 본다 다만 인간은 뭇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님의 생기 (breath of Life) 받은 생명 존재(창2/7)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존재이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하고(마4/4, 요6/63) 영적 숭배대상으로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파악했다(요4/23-24, 요17/19, 계4/11),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은 결코 자연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청지기적 자격이 없는 것이다.(고전 3/20-23) 무소불위의 만물의 영장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지기적 사명아닌 하나님 명령에 반하고 배도하는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땅으로 에덴동산을 별도로 창설해주셨다(창2/8) 그곳은 각종 과일나무와 생수가 흐르고 인간이 경작도하고 돌봐야할 땅이요 화염검으로 보호하시는 특별 영역이었다.(창3/24). 토지는 그 자체 자연 야생 wild 그대로 두는 것이 보호가 아니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개간되어지고 관리되어야할 대상으로 파악했다. 초식으로 먹고 살아왔던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 육식이 허용되었고 (창9/1-6) 그 것도 불필요한 살상은 허용되지 않았음을 논증했다(신 22/6-7). 넷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 인공구조물 도시 등 조형환경들은 꼭 필요한 인간들의 문화활동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인간생명을 중시하고 안전한 공사를 해야한다 (신6/8) 바벨론 우상이 되지 않도록 거대화 신격화를 지양해야할 것이다(계18/1-24).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이되어지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드릴 거룩한 성소 성시들이 되어져야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요소들에 대해서는 경Landscape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은

인간의 이용과 위락을 위해 적절히 개발을 유도해야할 대상으로서 미적 생태적 역사적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고려한 조경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몇가지 성공적 사례들은 이것이 E.S.S.D의 대안적 환경론임을 입증하고 있다.

끝으로 기독교환경보호운동은 범지구적 범인류적 차원에서 상호협조협력해야하지만 자연보호운동의 긍정적 목적이 상이함을 구별해야함을 제안했다.인간의 유토피아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혹은 범신론자들처럼 종교론자들처럼 접근하는 무리들과는 목적이 상이함을 알아야한다.기독교 환경론에서는 창조주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롬1/20,고전3/16-23) 자연의 청지기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야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LynnWhite,Jr,The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Scienc vol 155 no3767,1967.3.10. pp1203-1207.
- 2.D.W.Meinig,10versions of the same Scene,The Behodling Eye, Landscape Architecture ,1976,1 PP47-54
- 3]김농오 ,창조신앙과 기독교 환경론,통합연구,통합연구 1991.9 PP89-108
- 4.김농오,인간과 창조세계와의 조화 절실,고신대학보,창간20주년 특집,1989.10.31.
- 5.김농오, 환경의 역사적 철학적 이해와 성경적고찰,호신대학보 1989.11
- 6.김농오 ,기독교환경운동의 전개방안,월드크리스찬,2001년 2월 5일
- 7.김농오,환경오염에대한 책임과 의무,자연과인간이죽어간다특집호,빛과소금1989.10 PP84-87
- 8.김농오,세계잼버리대회허와실,빛과소금 1991.10 PP53-54
- 9.김농오,숲,권두화보 빛과소금,1992.8 PP16-23
- 10.김농오 ,인간과 창조세계와의 조화,고신대 창립20주년 특집,고신대학보,1989년.10월 31일)
- 11.김농오, 환경의 역사적 철학적 이해와 성경적고찰,호신대학보 1989년 11월
12. 김농오 ,기독교환경운동의 전개방안,월드크리스찬,2001년 2월 5일
- 13 김농오 ,그린벨트의 허와실,환경과조경 26호,1988,11,1

14 김농오 ,기독교와 사회정의,현대종교,1990.1 PP70-88

15,김농오 ,전남갯벌의 도립공원 조성방안 ,5대 생태공원 성공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전라남도,현대호텔컨벤션홀 2007.7,PP199 -222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환경론은 첫째,.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요 인간들이 다스리고 fullfill(창1/28) 관리해야할 (창2/15)대상으로서 파악했다 둘째,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은 결코 자연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청지기적 자격이 없는 것이다.(고전 3/20-23) 무소불위의 만물의 영장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지기적 사명아닌 하나님 명령에 반하고 배도하는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셋째,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땅으로 에덴동산을 별도로 창설해주셨다(창2/8)그곳은 각종 과일나무와 생수가 흐르고 인간이 경작도하고 돌봐야 할 땅이요 화염검으로 보호하시는 특별 영역이었다.(창3/24).토지는 그 자체 자연 야생wild 그대로 두는 것이 보호가 아니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개간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할 대상으로 파악했다.넷째,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 인공구조물 도시 등 조형환경들은 꼭 필요한 인간들의 문화활동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인간생명을 중시하고 안전한 공사를 해야한다 (신6/8)바벨론 우상이 되지 않도록 거대화 신격화를 지양해야할 것이다(계18/1-24).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이되어지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드릴 거룩한 성소 성시들이 되어져야할 것이다.다섯째,환경요소들에 대해서는 경Landscape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은 인간의 이용과 위락을 위해 적절히 개발을 유도해야할 대상으로서 미적 생태적 역사적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경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몇가지 성공적 사례들은 이것이 E.S.S.D의 대안적 환경론임을 입증하고 있다.

끝으로 기독교환경보호운동은 범지구적 범인류적 차원에서 상호협조협력해야하지만 자연보호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상이함을 구별해야함을 제안했다.기독교환경론에서는 창조주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롬1/20,고전3/16-23) 자연의 청지기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야함을 제안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해나갈 때 환경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주실줄 믿는다.(신28/1-14,대

하7/14).

<<<Abstract>>>

In the study, Christian World view of Enviroment sfcified like these:

first Nature must be filled and taken care of by man (Gen 1/21,1/28,2/15))

second,man mandated the authority of stewardship to rule over living creature from God instead of overkilling(Gen9/5-6,Det22/6-7)

third,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in Eden:and there put the man he had formed and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Gen 2/8-15)therefore nature should be cultivated by man..Edenic World could be realized by man

fourth,Building Environment built by man should be made safely and used for th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Det22/8,Rev18/2)

finaly several experience of landscape approach profession tesify the Christian Worldview of Environment could be the alternative realization of E.S.S.D from the imminent Envinomental disaster